

NAA 는 발근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발근량은 NAA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2.0 PPM 이상에서는 줄기의 양단에서 모두 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. NAA 4.0PPM 까지는 NAA 의 농도를 증가시키기에 따라 Callus 의 발생량도 직선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葉보다는 莖片에서 Callus 의 유기 및 생장이 좋았다. 그러나 Callus 의 유기 및 성장에는 NAA 보다 2,4-D 가 현저히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B . A 는 현저한 교호작용을 보였던바 Callus 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높았다. 胚배양의 경우 NAA 2.0PPM 처리에서 莖의 발생이 현저히 많았으며 8.0PPM 에서는 Callus 의 유기 및 생장이 가장 왕성하였다.

8. 畚田 兩條件下에서의 統一型 水稻品種의 生態的 變異에 關한 考察

(서울대 農大) 李秉烈 , 李殷雄

速綠交雜種인 統一型 水稻品種의 발 條件下에서의 適應性을 檢討하기 爲해 統一型品種 密陽 29 號를 Japonica 型 水稻品種 振興 및 陸稻品種 農林標一號와 畚田兩條件下에서 生育, 成分含量 및 生態的 特性을 比較, 檢討한 結果

- 1) 草長 增加 程度는 振興과 農林標一號가 논밭간에 有意한 差異가 있던 반면 密陽 29 號는 발조건에 유의하게 減少하였으며 이러한 傾向은 肥料水準間에 同一하였다.

- 2) 出穗期는 발조건하에서 振興은 3일, 밀양 29호는 10일정도 지연 되었으나 농림나 1호는 논발간,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
- 3) 生育期間中 乾物重의 變化는 草長의 增加와 같은 경향이었는데 밀양 29호의 LAI는 생육중기까지는 논 조건하에서 더 컸으나 후기에는 발조건하에 더 컸고 농림나 1호도 이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振興은 논발간 차이가 없었다.
- 4) 葉身內 窒素含量(%)은 各 品種 모두 논발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규질비는 논조건하에서 더 낮은 경향이였다.
- 5) 간장은 振興과 密陽 29호는 발조건하에서 감소하였으나 농림나 1호는 신장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료수준간에 동일하였고 葉長은 各 品種 공히 논조건하에서 葉幅은 발조건에서 증대 되었다.
- 6) 공시품종의 수량성은 공히 논 조건하에서 더 많았는데 밀양 29호와 농림나 1호는 임실율이 振興은 1수립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.

9. 수도 등숙기 엽과 이삭의 에칠렌 생성량의 품종간 차이

*
(작물시험장) 이종훈, 이문희

수도 등숙기간중 잎과 이삭에서 에칠렌 생성량과 등숙속도와의 관련성을 알기 위하여 특성이 다른 품종을 이용하여 에칠렌 생성량을 측정하였다.